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31주일
2021. 10. 31. (나해) 제2292호

대구주보



매호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bernard - 2021. 8

매호성당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집
그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신명 6,2-6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 히브 7,23-2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2,28ㄱ-34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보으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묵주기도의 힘과 첫째 계명



본리본당 주임 | 정재성 요한 신부

10월 묵주기도 성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후 매일 아침 등산을 다녔습니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지향은 '본당 교우들의 건강과 일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는 에너지를 얻어서 좋습니다.

'묵주기도'의 정식 명칭은 'Rosarium Virginis Mariae(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아)'이며, 이를 번역하면 '동정 마리아의 장미 꽃다발'입니다. '인체의 호흡'에 비유될 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묵주기도는 구원 역사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루르드와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끊임 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당부하셨듯이, 우리도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첫째 계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은 헌법의 역할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많은 구체적인 규정이 생겼는데, 총 613개나 되었습니다. 율법 규정이 많다 보니, 율법 정신을 살기보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허례허식과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고달픈 삶을 얻어내는 귀찮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매섭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식 있는 율법학자들은 십계명의 근본정신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마르 12,29-31)

이것은 613개의 율법 규정과 십계명에 부담스러워하던 사람들에게 명쾌한 가르침을 주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이중 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처럼,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멘. **궤론**

타마르 (창세 38; 마태 1,3)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가부장제 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족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혈통을 기록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족보(마태 1장)에는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시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은 타마르, 가나안 창녀 라합, 모압 여인 룻, 다윗과 간통한 밧 세바, 그리고 성모님이지요. 특히 성모님 이전의 네 여인은 이방인이거나 부절절한 과정을 거쳐 자식을 가진 이들인데요, 마태오는 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하느님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나약한 인간 본성을 받아들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여인 타마르는 가나안 사람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타마르라는 이름은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하늘을 향해 무려 30미터까지 곧게 자라는 야자나무는 전통적으로 의인을 상징하며(시편 92,13)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야자나무/종려나무(그리스어 포이닉스 φοίνιξ)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할 때(요한 12,13) 그리고 천상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묵시 7,9) 손에 든 '환호와 찬양'의 나뭇가지이기도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타마르는 그 이름부터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참 적절해 보입니다만, 실제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다. 원래 유다의 맏아들인 에르와 혼인했던 타마르는 남편이 죽자 고인의 형제와 혼인하여 대를 잇는 수숙혼(嫂叔婚: 신명 25,5-10 참조) 전통에 따라 둘째인 오난과 혼인했지만, 그 역시 죽는 바람에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버림받고 친정으로 쫓겨났지요. 이스라엘에서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 같은 법적 경제적 보호자가 없는 과부는 고아나 이방인과 함께 사회의 절대적 빈곤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마르가 창녀로 위장한 채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그의

아이를 가지고 유다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던 일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창세 38장 참조).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에는 죽음과 비탄, 욕망과 속임수로 얼룩진 인간 군상의 민낯이 담겨 있는데요, 창세기 저자의 시대든 오늘날이든 윤리적 기준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닐 터입니다. 성경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일까요? 성조 유다가 제멋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족이 아닌 이방인 여성과 결혼하고(38,1-2) 두 아들의 죽음을 그다지 애도해하지도 않으며(38,6-10)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잉태한 타마르를 죽이려 함으로써(38,24)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소홀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방인 여인 타마르는 유다의 자손을 낳기를 간절히 열망했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과 구원 경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타마르는 유다의 아들 페레츠를 낳음으로써 다윗의 족보에(룻 4,18-22)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영예롭게 들어가게 되었지요(마태 1,3). 물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가(창세 37장) 타마르의 기지와 열망 덕에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38,26) 하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성조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후 요셉 일화에서 야곱 가문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주인공으로 변모할 수 있었음도(43,8-14; 44,18-34)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다 가문의 여인이길 열망했던 타마르를 당신의 구원 경륜 안으로 기꺼이 맞아들이신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극복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불평과 좌절만 하기보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길 지지치 않고 그분의 구원 경륜 속에 나를 온전히 던지는 복된 일상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교황, 오는 11월 아시시에서 가난한 이들과 만난다

2021년 9월 26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재협 신부



오는 11월 12일 포르치운쿨라를 방문하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표는 아시시의 큰 기쁨이다.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움브리아-사르데냐관구 봉사자 프란치스코 필로니(Francesco Piloni) 신부는 “우리는 매우 행복하다.”라며 “이 행사를 통해 가난한 형제들과의 만남에 역점을 두려는 교황의 바람”을 강조했다. 필로니 신부는 이번 교황의 방문이 “검소함에 대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며,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 리노 피시켈라(Rino Fisichella) 대주교가 기획한 이번 만남은 비공식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중심은 “관계”

필로니 신부는 최근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진행된 사전회의를 통해, 교황의 바람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행사의 본질적 의미로 전환하려는 열망이 이미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모든 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인정, 돌봄, 배려가 될 작은 선물로부터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행사의 공식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필로니 신부는 다음과 같은 교황의 말을 즉시 떠올렸다. “너무 부자여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너무 가난해서 줄 것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시급히 관계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교황의 메시지와 다름이 없다. 필로니 신부는 형제애라는 주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형제애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바람과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불리는 죄의 구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과”의 가치

필로니 신부는 교황의 마음속에 아시시의 성인(프란치스코)의 영성, 특히 『인준받지 않은 회칙』(Regola non bollata) 제9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정신이 있다고 말했다. “작은 형제회 회원들은 무가치하고 멸시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기뻐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교황 방문은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느끼는 단순한 기쁨만 있는 게 아니다.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살 수 있게 했던 포르치운쿨라의 고유함이 있다.

지난 2013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서 처음 아시시를 방문했을 때,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나오면서 포르치운쿨라 경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오직 한 단어만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한 바 있다. 그것은 “복음, 복음, 복음!”이었다. 필로니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장면은 다가올 교황님의 방문 이후에도 언제나 인상 깊은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만남의 자리로 만들려는 이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종회’ 혹은 ‘경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경언(李景彦) 바오로는, 1792년 한양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충청도 연기 군수를 지냈으며, 부친 이윤하 마태오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요 외조부였던 이익의 학문을 잇고 있었다. 또 그의 어머니는 교회 창설에 기여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누이였다. 바오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실천하였다. 비록 몸은 허약하였지만 성격은 유순하면서도 강인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훌륭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 때 형인 이경도 가롤로와 누나인 이순이 누갈다가 순교한 뒤로, 그의 집안은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경언은 어머니와 형수와 함께 살면서 가난을 신앙으로 참아내며 언제나 냉담자를 권면하고, 교우들을 격려하며,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의 곤경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였다. 1819년에 순교한 조숙 베드로가 이러한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바오로는 이후 명도회(明道會)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학식과 재주를 이용하여 교회 서적을 베끼거나 상분을 모사하였고, 이를 교우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또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복경을 왕래하는 밀사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회장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헌신하였다. 성 정하상 바오로가 복경을 왕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생각하면서 자주 묵상하였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천주를 위해 죽음을 당할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곤 하였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난 뒤, 바오로는 자신이 나누어준 서적과 상분 때문에 전주 관아에 고발되었다. 체포된 뒤 전주로 이송된 바오로는 여러 차례의 혹독한 형벌로 인해 약해지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채찍질해 가면서 순교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경언 바오로
(1792 ~ 1827년)

“상처의 괴로움으로 말하자면, 나의 너무나 연약한 육체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천주의 은총과 성모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찌 한신인들 이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 천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무수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으로 볼 때, 분명히 나를 저버리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 큰집에 올라오실 때에 내가 마중 나가 우리의 공변된 아버지에게로 함께 가서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는 데 노력하였지만, 선천적으로 약했던 바오로의 육체는 더 이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1827년 6월 27일(음력 윤5월 4일) 전주 옥중에서 하느님에게 영혼을 바쳤으니, 이때 그의 나이는 35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이대길(시메온), 이성우(아길로)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이대길(시메온, 향년 80세) 신부님과 이성우(아길로, 향년 85세)신부님께서 지난 10월 17일(일)과 23일(토)에 선종하셨습니다. 10월 19일(화)과 25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들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⑪

“인내와 노동의 기쁨, 형제애, 거둬되는 너그러운 용서, 그리고 특히 기도와 삶의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7항).” 교회는 가정들의 가정이고, 모든 가정 교회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키는 것은 개별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랑은 교회의 삶에서 변치 않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혼인 결합의 목적은 이러한 사랑을 키우고 심화하라는 끊임없는 요청에 있습니다. … 이렇게 서로 거저 주고받는 선물의 아름다움,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정 성소에 응답하여 얻게 되는 열매들입니다.”(사랑의 기쁨, 86~88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줍깅 / 플로깅(Plogging,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활동) 실천해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42호 정답

1. 계약, 이사악, 법규, 영원한 계약, 가나안 땅
2. 말씀, 규정, 법규, 법, 가르침
3. 6번
4. 137편

이웃 사랑 뿐만 아니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6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1.7(일) 9:3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교육 | 모집 | 기타

2022학년도 무학교 신입생 모집

존중과 감사로 행복을 배우는 무학교

대상: 경북지역 중3학년 졸업예정자

고입 설명회: 11.20(토)

기숙사 운영(원거리 우선)

문의: 854-8015

37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기간: 1.2(일)~29(토) 4주

설명회: 11.6(토) 14:00

대상: 초등 2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주일 성령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11.14(일), 11.21(일), 11.28(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가톨릭상지대 2022년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11.8(월)~22(월) _ 수시 2차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9:00~17:30)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 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일반검진, 5대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미혼모 돕기

2022년 흥창익 비오 신부님의 묵상사진 북캘린더 “찬미받으소서” 출시 예약판매

교구 문화홍보국에서 매년 발간하는 탁상용 북달력이 2022년에는 흥창익 비오 신부님(효자본당 주임)의 묵상사진과 함께 합니다. 이번 캘린더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 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예약기간: 10.25(월) ~ 11.12(금)

예약금액: ~~40,000원~~ 8,000원(20% 할인)

주문 및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OF. SUMA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주)대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터빌딩 8층
진료문의: 216-7345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종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원 서재신 (베드로) · 장주현 (바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 **위령의 날(11월 2일) 미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톨릭묘지(교구청 성직자 묘지, 군위 묘원, 범물동 묘원)의 위령의 날 미사가 없습니다. 각 본당 위령미사에 참여 바랍니다.

* 교구청-군위묘원 간 버스 운행 없음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주재용(바로로) 신부
1975년 11월 1일
- 박병원(필립보) 신부
2002년 11월 3일

행사 | 모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목처

황금배경템페라展

기간: 11.3(수)~12.7(화)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목처

기획: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목처, 회화과 황금배경템페라 연구회

제47회 대구가톨릭미술가회전

기간: 11.9(화)~14(일)

오프닝: 11.10(수) 18:00

장소: 드망즈갤러리

교육 | 모임

세계 젊은이의 날 기념 도보순례

청년을 위한 도보순례_ 한타가는길

청년청소년국 청년사목 홈페이지 참조
신청: 10.1(금)~11.15(월)까지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http://www.jesusclub.or.kr>

대건고등학교 온라인 입학설명회

10월: 21(목), 28(목)
11월: 16(화), 23(화)
매주 금요일 소규모 상담 가능
신청: 대건고 홈페이지
문의: 235-4560

2022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1.1(월)~12(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11.13(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수녀, (010)8682-4237

채용 | 안내

동천성당 교종미사 반주자 채용
동천성당 성가대 반주자를 구합니다.
문의: (010)4525-2337

들꽃마을 조리원 채용
대상: 60세 미만 건강하신 분
조건: 경력 무관
문의: (054)956-9800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정혜영(스테파노), 하문자(헬레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군위묘원 위령 성월 미사 안내
일시: 11.1(월)~10(수) 11:00
장소: 군위묘원 내 성당
주례: 군위묘원 담당 장영일 신부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사전서류접수: 10.25(월)~11.5(금)
 - 제출방법: 문화홍보국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5(목)
 - 장소: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문안
-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사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교양정신
·고양이특화
·아간염급

대구광역시 유서구 김성동 380-5 (아미트 김성원 병원편)
대표원장 이세원(투구) 053-571-0075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Lumasis 휴마시스
코로나19 검사
집에서 간편하게, 결과는 15~20분!

IIII 네오 MDT MEDIC
하현태 미카엘
010.5542.6006

※ 본 검사는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임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대구 아영로 46 [신암동 214-4] 2층 Tel 053-954-7582

파크골프
초급자, 중급자, 심급자, 선수용

초보자 모집/레슨
골프채-국산, 수입산, 혼마 중고채-매입, 보상판매
골프채세트-교구특별할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3008
유용단지로 45 전차관 18 239호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로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